

“한국 기업, 덩치 커졌지만 내실은 허약”

대한상의, 1612개 상장사 재무상황 종합 분석

3분기 자산 2.8%·부채 4.4%↑... “빛으로 일군 자산”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휘청... 내년 재정상황 ‘암담’

국내 기업들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이 부실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성장속도와 활동성마저 둔화되고 있어 내년 경기한파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1612개 상장사의 올해 3분기까지 재무상황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총자산 등 성장지표는 개선됐지만 매출액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내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악화 양상을 띠었다.

우선 성장성의 경우를 보면 올해 3분기 조사 대상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코로나19 안정세에 접어든 지난해(14%)에 이어 매출 성장세를 유지한 셈이지만, 성장 속도는 이전보다 다소 둔화했다.

총자산은 이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총부채도 4.4% 늘어나 ‘빛으로 쌓아 올린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분석대상 기업의 합산 총자산은 39조 원이 증가한 반면 총 부채는 40조 원 늘어나 부채증가액이 자산증가액을 앞질렀다.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익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상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조사 대상 기업들은 53.5%의 영업이익의 증감을 기록했다. 올해 -7.2%로 내려앉았다. 이런 가운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실제 대상 기업의 3분기 발생 이자비용은 총 3조5000억 원에 달했는데,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2조6000억 원, 3조 원 등의 비용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2분기 4000억~5000억 원의 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나타내는 이자보상 배율은 10.6배에서 8배로 급락했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일제히 하락했다. 외부 차입의 증가로 전체 기업의 3분기 누적 부채비율(81.4%)과 차입금의존도(19.4)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부채비율(74.2%)과 차입금의존도(18.9%)보다 커졌다.

특히 자기자본 대비 기업부채의 크기를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상승 폭도 7.2%p로 코로나 당시의 2019~2020년 상승폭(+2.6%p, 3분기말 기준)을 크게 앞질렀다. 총자본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도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3%p 떨어진 55.1%를 기록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극심할 2019년 3분기 당시에는 58.1%에서 57.2%(2020년 3분기)로 0.9%p 하락하는데 그쳤는데 이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나빠진 상황을 반전시킬 기업의 활력 역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활동성을 재고자산이 늘어난 정도로 판단했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1%, 2021년 6.6%에서 올해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재고자산회전율도 10.7회로 기록됐다. 이는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0년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전율이 낮으면 재고자산의 소

진속도가 더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경영위기가 코로나19 당시보다 크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증명됐다”며 “올해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됐던 공급망 훼손, 고금리, 고유가-에너지 등의 고비용 복합위기는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많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수출과 내수판매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형국”이라며 “국내 대기업의 가동률이 코로나 때보다 떨어졌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내년 목표실적을 하향조정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3초컷 키워드

☞ **홀플러스, 네이버와 손잡고 ‘1시간 즉시배송’ 늘린다...** 홀플러스 ‘1시간 즉시배송’은 이달 21일 ‘네이버’에 직접 서비스 제공. ‘1시간 즉시배송’은 고객이 주문 상품을 전국 33개 도시의 253개 홀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서비스.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제공.

☞ **“배달의민족에서 웹툰도 본다”, 배민 ‘만화경’ 앱 신설...** 배민 앱 이용자는 ‘My배민’ 메뉴서 만화경의 모든 웹툰 무료, 회원가입로그인 하지 않아도 돼. 만화경은 유아형결제 등이 2019년 8월 론칭한 웹툰 플랫폼 서비스. 현재 계약 작가 170여 명, 누적 작품 수 180여 개 보유.

☞ **농심, 신라면보다 3배 빠른 ‘신라면 제페토 큰사발’ 출시...** 신라면 제페토 큰사발은 스코빌지수가 6천 SHU로 기존 신라면 큰사발의 3배 수준. 고기-계란 건더기를 늘려 스프를 2.5g에서 4.9g으로 약 2배로 증량. 농심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받은 소비자 의견을 신제품에 적용했다고 설명.

어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이월 매일수목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는 기업가정신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홍대입구 상권, 공실률 감소세... ‘프랜차이즈의 무덤’ 탈출 중

최근 인플레이션-금리인상 등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홍대입구 상권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 ‘프랜차이즈의 무덤’이란 별칭이 무색하게 홍대로의 외식인구의 유입을 이끄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존재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홍대·합정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9%로 올해 1분기(13.3%), 2분기(12.4%)와 비교했을 때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차별화 경험 제공 콘셉트 프랜차이즈 매장 인기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았던 점포들이 엔데믹 시대를 맞아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홍대입구 상권 내 프랜차이즈들의 피해가 컸다. 랜덤마크 역할을 했던 버거킹 홍대역점을 비롯해 홍익대 정문 앞 △스타벅스 △다이소 △맥도날드 △아리따움 등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최근 오픈한 프랜차이즈 매장

들은 기존 매장과 다른 콘셉트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공략에 성공했다. 어느 매장에서나 안정적으로 균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서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연남동에 신규 매장을 오픈한 프랜차이즈 ‘굿손’은 베트남 현지 맛과 분위기를 살려 해외여행에 대한 대리만족을 선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굿손은 캐비아 프랜차이즈(KAVIAR F)와 용리단길 핫플레이스 ‘효뜨’의 남준영 셰프가 브랜드인 베트남 분짜 전문점이다. 쌀국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베트남 음식점과 달리 분짜와 껌을 메인 음식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인테리어 소품이나 집기, 메뉴판 등 매장 분위기도 베트남 로컬 노포 느낌으로 구현해 이국적인 매력이 특징이다.

특히 굿손 연남점의 경우 기존 타점과 달리 분짜-껌과 같은 메인 메뉴 요리 시 AI 셰프가 구운 고기를 사용하는 등 푸드테크를 활용해 더욱 특별한 경험



캐비아 프랜차이즈 ‘굿손 연남점’ 매장 내부. 굿손

을 제공할 예정이다.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도 프랜차이즈의 불거침 영역인 ‘통일상’의 틀을 깨고 ‘Amazing Box’ 콘셉트 스마트 스토어 홍대점을 오픈-운영하고 있다. 롯데리아 홍대점은 홍대의 힙한 공간 인테리어 구성과 비대면 무인 기기의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접목시킨 게 특징이다.

무인 키오스크와 무인 픽업존을 마련해 매장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캠퍼스 상권 특성을 살려 취식 공간을 계단식 좌석의 형태로 적용해 독특함을 더했다.

카페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매장 인테리어를 적용한 L7 홍대점을 오픈-운영하고 있다. 따뜻한, 아늑함을 뜻하는 덴마크어인 ‘휘게’를 콘셉트로 2개의 집과 같은 안락한 느낌을 낸 공간이 특징이다.

타 매장과 달리 매장에서 매일 아침 직접 볶은 싱글 오리진 원두를 사용해 고급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음료 외에도 파스타, 피자 같은 식사 메뉴를 함께 판매해 포코텔을 이용하지 않아도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이색 경험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